

정읍시 아동학대 대응 팔 걷었다

신고 건수 지난해 비해 70% 증가 홍보영상 전광판·유튜브 등 송출 전담 대응팀 신설·긴급전화 설치

정읍시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정읍시는 최근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공감 형성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과 권리 보호를 주제로 한 홍보 영상을 만드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정읍시 아동인구(만18세 이하)는 1만 4300여 명이며,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지난해 대비 약 70% 증가했다. 시가 제작한 홍보 영상은 40초 분량으로 지역 내 전광판 2개소(정읍역, 제일고 사거리)와 정읍시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송출



정읍시가 운영중인 아동학대 예방 홍보 전광판.

된다. 영상은 민법 제915조의 징계권 폐지에 따른 처벌 없는 양육문화 조성 및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 촉구, 신고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시는 아동학대 대응 공영화 추진에 맞춰 아동학대 전담 대응팀을 신설하는 등 아동들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 향상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 아동학대 긴급전화(063-536-1391)를 설치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갖추는 한편, 피해 아동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 조치를 위해 정읍아산병원을 아동학대 전담병원으로 지정했다. 시는 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담 요원을 배치하고 지역 내 경찰과 협업을 통한 합동 조사 체계도 구축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매년 교육과 캠페인, 확대 위기 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위기 아동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아동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 방지 등 아동의 권익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성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s@



고창군 '찾아가는 식초교실' 반응 뜨겁다

6월 시작, 2개월만에 600명 참여

고창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식초교실'의 열기가 뜨겁다. 지난 6월에 시작한 찾아가는 식초교실은 2개월 만에 600여명이 참여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찾아가는 식초교실은 고창군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사전신청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식초 효능, 주류와 과일을 이용한 식초 만들기 등 실생활에서 손쉽게 식초를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교육을 받은 주민들은 식초가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간단한 방법으로도 식초를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놀라워했다. 특히 쿼터공중, 관절염에 효과가 있는 초밀란은

어르신들에게 호응도가 높으며 활용도가 높은 청주 식초, 막걸리 식초 등도 반응이 좋아 다양한 식초를 만들고자 하는 추가 교육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식초교실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강사 발굴을 위한 식초리더 양성과정 교육을 이달중 진행할 계획"이라며 "건강한 식초문화를 즐기고 하나의 식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창군에서는 식초문화 확산을 위해 식초문화 아카데미와 카페, 요식업체 등을 대상으로 특별과정 교육도 추진하고 있다. 식초 산업을 위해 한국형 K-발사믹 식초 제품생산과 다양한 상품화 지원사업도 진행해 식초문화도시 입지를 강화하고 식품시장 변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위해 애쓰고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군산 강소특구, 전기차 기술 개발·이전 속도낸다

기술이전사업화 기업 30곳 신청 하반기 7개 연구소기업 설립 추진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가 특화분야인 친환경 전기차 기술개발과 기술이전 사업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산강소특구육성사업단에 따르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주관의 기술이전사업화(R&BD)에 연구소 기업형 7개사를 비롯해 기술이전형 23개사 등 모두 30개사의 기업이 신청을 마친 상태이다. 기술이전사업화는 군산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신제품·

신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R&BD(제품화, 양산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강소특구 기술이전사업화 선정규모는 14개사로 이중 특화분야인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관련 기업 7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기업별 지원금액은 연 2억원이다. 사업 주관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기업별 출자기술 중핵심성 등 서류평가와 사업화추진전략 발표평가를 거쳐 9월말 최종 지원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기술 출자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시제품 개발을 비롯해 국내외 표준·인증, 양산기술개발, 마케팅 등을 지원 받게 된다.

올해 군산 강소특구육성사업은 국비 6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72억원으로 ▲강소형 기술창업 ▲지역특화성장지원 ▲사업화 우수기술발굴 및 수요기업 연계 ▲기술이전사업화(R&BD)의 4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8개의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하반기 설립을 목표로 우수기술이전과 출자를 통해 7개의 연구소기업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강소특구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산업 생태계의 허리 축인 R&D 기술력 기반의 탄탄한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박기성 기자 nogusu@

지역 농산물 판매촉진 익산시 '온라인 특판전'

익산시가 지역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해 탐마루 쇼핑몰(topmaru.net)에서 '온라인 특별 판매전'을 진행한다. 이번 특별 판매전은 6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다. 판매전에서는 품목당 5%에서 최대 20% 할인행사와 함께 무료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역 농특산물인 고구마, 배, 매운, 쌀(친환경) 등 탐마루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시는 판매촉진을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도교울림픽 펜싱 동메달리스트 권영준 선수가 추천하는 탐마루 농특산물 네이버에서 온라인 홍보를 진행한다. 권영준 선수는 현재 익산시청 소속으로 시 홍보대사에 위촉됐다. 시는 지난 8월부터 익산역 역내 광고를 시작했으며 주 판매지역인 수도권에서 역내(수서역)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탐마루 농산물은 철저한 품질관리를 바탕으로 공동선별·상품화 과정을 거쳐 대형유통업체, 도매시장 등 전국각지에 공급 중이다. 특히 이커머스, 흡소핑 등 비대면 판매확대와 신시장 개척을 통해 올해 약 450억원 이상의 매출이 예상된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보를 진행하고 있다. 탐마루 농산물은 철저한 품질관리를 바탕으로 공동선별·상품화 과정을 거쳐 대형유통업체, 도매시장 등 전국각지에 공급 중이다. 특히 이커머스, 흡소핑 등 비대면 판매확대와 신시장 개척을 통해 올해 약 450억원 이상의 매출이 예상된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익산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사상 첫 비대면 추석이 권장되는 만큼 익산의 정취가 가득 담긴 탐마루 농특산물로 가족, 친지들과 고향의 정을 나눴으면 하는 마음에 온라인 특별 판매전을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남원사랑상품권 누적 판매액 2000억 돌파

남원사랑상품권이 지난 2019년 발행 이후 3년여 만에 누적 판매액 2000억원을 돌파했다. 남원시에 따르면 올해 8월 31일 기준 남원사랑상품권 누적 판매액은 2082억원(지류 1920억원, 모바일 162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120억원(전액 지류), 2020년 1324억원(지류 1,300억원, 모바일 24억원)을 판매했다. 올해도 현재 638억원(지류 500억원, 모바일 138억원)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고 가맹점 3400여 곳으로 늘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이러한 상품권 활성화 요인으로는 상인들이 상품권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환전시스템, 환전 수수료 무료, 지역 내 모든 업종의 상가가 가맹점으로 등록된 점 등으로 분석됐다. 남원사랑상품권은 1인 월 모바일상품권 50만원, 지류형상품권 50만원을 더해 개인당 월 100만원을 10%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시행 3년째인 남원사랑상품권이 모든 시민이 이용할 정도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순창군, 농민공익수당 6005명에 7일 지급

순창군이 농업 및 농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 보전은 물론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농민공익수당을 추석 전인 7일 지급한다. 순창군은 농민공익수당을 신청한 농가 가운데 자격요건 등 검증을 거쳐 6천5명을 최종 대상으로 확정했다. 공익수당 지원대상은 2년 이상(2018년 12월31일부터 지속) 전북도 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를 가지고 있으며 도내에 있는 농지에서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가 해당된다. 군은 지난해 순창사랑상품권으로 공익수당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공익수당 선불카드(30만원 2장)로 지급한다. 이는 카드로 지급하면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비용이 절감되며 보관이나 사용도 쉽기 때문이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버저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